

## 전국여성노동조합 창립 15주년을 축하합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

8월 29일 여성노조가 열다섯 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1999년 엄혹한 경제위기속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결심으로 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가입해도 대응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보조원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숨어있는 사장님을 찾아 힘들게 싸워야 하는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 전국의 초·중·고 학교에서 마치 유령취급 받으면서 학교를 떠받들어 온 학교비정규직도 여성노조로 모였습니다. 15년이 지나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여 덩치도 힘도 커졌지만 여성노조는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성들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면서 임금은 남성의 6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출산과 육아의 권리마저 아직도 노동조합의 힘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도 노동조합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유일한 해답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일하는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큰 아이가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듯 우리끼리 서로 사랑을 나눕시다. 스무 해 생일에 더 큰 덩치와 더 큰 사랑을 베풀 여성노조의 모습을 함께 키워 나아갑시다.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유기홍



전국여성노동조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지킴이를 자부하는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해온 일들, 가령 2000년부터 용역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했던 활동, 90%가 여성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장기근무가산금을 연 2만원으로 높였던 2013년 성과 등을 생각하면, 15주년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나지현 위원장님, 최순임 사무처장님을 비롯해 앞장서서 애써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임금체불,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폭언과 폭행, 부당한 해고 등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이 계속 분투해주셔야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저도 지금처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 정의당 국회의원 정진후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정진후입니다.

여성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룩해온 전국여성노동조합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성의 노동권을 생각할 때 세상을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세탁기라는 문장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문장 뒤에는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는 수사가 붙습니다. 만약 세탁기가 완벽하게 이 두 문장을 충족시켰다면 전국여성노동조합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절반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계가 만들지 못한 진정한 평등사회 실현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며 조직을 일구며, 여성노동자들이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대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앞길에 언제나처럼 함께하겠습니다.

여성의 노동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해온 전국여성노동조합의 15년 역사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여성노동조합 당차게 당당하게!! 앞으로 지지하지 않는 열성적인 활동 펼쳐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남윤인순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창립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걸어온 아름다운 투쟁의 길에 밝은 빛이 비추길 소망하며, 힘닿는 데 까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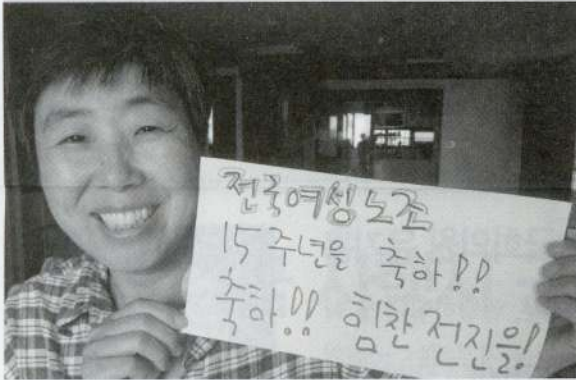


지난 7월 30일 여성노조는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500여명이 모여 '방학 중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여성노조는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촉구 외 ▲ 호봉간격 1년 3만원으로 인상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 ▲ 월 13만원 정액급식비 지급 ▲ 명절휴가비 인상(기본급 60%, 연 2회)을 요구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초대위원장 최상림

여~ 여성노조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아름다운 벗들  
성~ 성숙함과  
노~ 노련미가 어우러진 15년  
조~ 조용한가운데 역사를 바꾸었구나 자랑스런 동지들~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 위원장 박남희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 위원장 황영미

전국여성노동조합이 걸어 온 15년은 차별받는 여성노동자와 함께 한 감동의 역사입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여성노동자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 주었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이 내 권리를 찾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여성노동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15주년을 기념하며 아직도 소외된 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발걸음이 되어 줄 전국여성노동조합의 힘찬 내일에 박수를 보냅니다.

## 한국희망재단 이사 / 전국여성노동조합 지도위원 이철순

꽃다운 청춘 15살. 창립 15주년 전국여성노동조합을 '꽃다운 청춘 여성노조'라 부르고 싶다.

차별과 탄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더욱 더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들, 근기법 사각지대의 일터에서 아무보호도 없이 탄압받아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성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를 찾고자 몸부림으로 탄생 된 여성노조는 그동안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관심밖에 있던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투쟁은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특히 청소업종에서 일하시는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운동으로 많은 국민들과 노동계에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성과가 있었지요.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익개선과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여성노조가 처음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를 세상에 알려내고 조직화의 선구자로 차별 해소를 위해 싸워오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담한 노동 현실에서 자존감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우리들의 여성노조입니다.

여성노조가 있어 우린 그동안 웃고 희망을 노래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이여! 비정규여성노동자의 희망이여! 여성노동자의 기본권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더욱 큰 목소리로 외칩시다. 그 외침은 세상에 퍼져 세상을 바꾸어 나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문자

창립 15주년! 여성노동자의 희망이 되기를!  
전국여성노동조합 창립 15주년을 축하합니다.

1999년 8월,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에서 있었던 전국여성노동조합 창립대회의 역사적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노동자만을 위한 노동조합을 건설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여성노조는 참으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노동운동사에 최초의 사례와 투쟁의 기록을 많이도 남겼죠. ①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문제로 제기 ② 청소소용 여성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 ③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조직과 투쟁 ④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최초로 조직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노조가 많이 조직하고 열심히 투쟁하였지만 아직도 여성노동자들의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에 몰려 있어서 남성과 임금격차가 OECD 1위인 것, 비정규직 종류가 많아지고 여성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 직장 다니면서 임신·출산·육아 보장이 잘 안 되는 것, 돌봄노동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여성노조가 여성노동운동의 주체로 여성노동자들을 더 많이 조직하고 다른 여성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정치, 사회적으로 힘이 강해지면 여성노동자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여성노동자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들리게 하면 여성노조는 700만 여성노동자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 오신 여성노조 임원, 상근 활동가와 조합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임운옥

조합원 여러분! 전국여성노동조합 창립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출범은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노동자이기 때문에 겪는 온갖 차별과 무시 속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쉬운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시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한국 사회 최초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하였고 88cc 특수고용 노동자 투쟁, 학교 비정규직 투쟁 등을 통해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간 무한 경쟁 속에서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무조건 싼 값으로만 사람을 부리려는 정부와 악덕

기업의 못된 작태에 목직한 통침을 날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손길이 필요한 여성노동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서비스 노동자, 사람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돌봄을 제공하면서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 모두 땀 흘려 일하지만 여성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성희롱, 모성보호 등 꼭 지켜져야 될 여성노동인권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살 맛 나는 일터, 차별 없는 일터, 여성노동자가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 날을 위해 더! 더! 힘을 냅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끝까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원장 이주환

즐거움과 생동감이 흐르는 조직으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와우! 벌써 전여노조가 창립한지 15주년이 되었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여노조가 출범할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그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전국적으로 다 합쳐서 조합원 400여명으로 출발!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들의 각오는 남 달랐습니다. 5%에도 못 미치는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을 높이고 기존 노조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미조직,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들의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업별·대공장·남성중심의 노동운동이 주류였던 그 시기에 전국 어디에서나 단 한명의 조합원이라도 가입을 원한다면 달려갈 각오로 전국단일 노조 형태로 야심차게 출발하였습니다.

400여명이 모인 노조 창립일은 사명감과 비장함을 가슴에 간직하면서도 사뭇 흥에 겨운 잔치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딱딱하고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몸짓으로 흥겨움을 표현하고 간부와 조합원이 서로 구별 없이 어울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조합 일상 활동에도 계속 이어졌고, 조합원이 해고가 되어 싸움을 할 때도 비장함과 즐거움이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저는 전여노조의 이런 분위기가 여성만으로 조직된 노조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리더십의 발휘,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공감할 줄 아는 간부, 무리한 투쟁보다는 할 수 있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조합원의 참여와 의식을 높여가는 활동 방식, 창의적이고 풍부한 놀이 문화, 여기에 상근 활동가들의 헌신성과 노조 창립을 이끌고 지원해 준 자매조직인 여성노동자회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여노조는 조합원이 늘고 몸집도 커졌지만 조합 활동에서 이런 즐거움과 생동감은 적어진 느낌입니다. 앞으로 전여노조가 미조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버팀목이자 비빌언덕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면 이러한 즐거움과 생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듯이 정감 있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한 조직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서 함께 울고 웃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 서울지부

- **김금복** : 오투기 근성으로 거북이의 끈기로 15년을 걸어온 여성노조! 힘없는 여성노동자들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15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곽덕순** : 여성노조 15주년 성년에 진입하다. 활기차게 나가서 꿈을 이루자!!
- **황현숙** : 전국여성노조 15돌을 축하합니다. 여성노동자들과 울고 웃으며 훌쩍 자라 사춘기를 맞이하였네요. 거듭나기 위한 이 시절 함께 힘내요!
- **김정임** : 전국여성노조 15주년 자축합니다. 조합원들의 수많은 투쟁으로 하나둘 찾아온 우리 권리!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성장하는 여성노조!!
- **최명숙** : 여성노조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어려운 일도 같이하여 주시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주시고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여주신 우리 여성노조 화이팅!
- **정란희** : 여성노조 무한발전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 **김행자** : 15세... 종신보험을 들을 수 있는 나이네요. 자신을 약하게나마 방어할 수 있는 나이? 더욱 굳건한 여성노조가 될 수 있도록 화이팅~~!!! 15주년 축하드려요.
- **정성자** : 여~ 여성노조가 15살이 되었네요. 성~ 성숙한 여성으로 재탄생? 노~ 노동조합 중 단연 으뜸! 조~ 조직 활성화하여 100세까지 장수 하세요~~

## 인천지부



- **인천대분회 분회장 최금옥** : 15년 동안 크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대성하는 여성노조가 되시길 전 조합원이 기원합니다. 파이팅!
- **인천대분회 전 회계감사 이임구** : 힘없는 여성노동자의 권익에 앞장 서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더욱 더 당차고 당당한 행보 기대합니다. 파이팅!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성노조 15주년! 축하합니다~♪
- **인하대분회 분회장 이덕순** : 전국여성노조 15주년 축하합니다! 비정규직인 우리들이 열기 힘든 문을 여성노조와 함께 열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하대분회 조합원이 함께 응원합니다.
- **인하전문대분회 분회장 김복영** : 15주년! 항상 소외된 노동자를 위해 함께 싸워주고 품어준 여성노조! 밝은 미래 활기찬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 경기지부 부천 소사초 경수정

축하합니다. 올해로 전국여성노조가 15주년을 맞이하였네요.

2004년 학교에 입사한 제 경우 바로 여성노조에 가입하였으니 노조와 함께 한 시간이 벌써 10년이 되어갑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대부분의 자리에 여성들로 채워져 있는 가운데 전국 15만 학교비정규직 자리에도 여성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노조는 학교비정규직의 인권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해 온갖 수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그동안 많이 애쓰고 힘써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수많은 집회와 천막농성, 단식농성 그리고 면담 등을 하였고, 서울시청에서도 많은 조합원들이 한목소리로 전국 집회를 하였습니다. 추운겨울에는 칼바람을 맞으며 여름에는 불볕 더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모두가 땀뭍뭍쳐 하나가 되어 교육부 집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단순 일용잡급으로 근무하던 학교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2013년 12월 31일에는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맺어 교육감 채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단순 업무보조가 아닌 업무담당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등 그 외 많은 변화에 여성노조가 늘 함께 해 왔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직 전환, 제대로 된 호봉제, 장기근무수당 상한제 폐지, 정액급식비 지급, 명절휴가비 100% 지급, 상여금 지급 등등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해야 될 일들입니다. 조합원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투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여성노조가 15살이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조합원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광주전남지부 급식지회 조합원 강제희

여성노조가 15번째 맞이 하는 생일을 축하합니다.

힘들어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비정규직들의 인생, 눈물겨워도 어떤 위로도 가슴속에 와 닿지 않을 만큼 지친 비정규직들의 삶속에서 '일어나라 딸들아!'라는 캐치프레이드를 외치며 든든한 등대 같은 존재로 우리네 곁을 지켜주는 여성노조입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살만한 세상으로 가는 한 가닥 희망의 불빛이 있기에 힘차고 당차게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밝은 세상을 꼬옥 만들어 내리라는 희망을 안고 오늘도 열심히 뛰어봅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눈부신 15주년을 뜨겁게 축하합니다.

앞으로 우리 비정규직 삶속에 함께 숨 쉬며 더한 역경을 헤치고 굳세고 더 단단한 주춧돌로 자리 매김하며 행복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15주년 창립기념일을 계기로 조합과 조합원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더욱 결집력이 강한 노동조합이 되길 기원합니다.

## 전북지부 급식지회 강명숙 지회장

여성 노동조합 15살을 벅찬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험겨운 삶을 이어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 더 나아가서 모든 여성들의 평등한 세상을 위해 앞만 바라보며 달려온 지난 15년 동안의 여성노조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대로 대한민국 21세기 초반의 여성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과 설움이 자양분이 되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삶을 지켜내듯, 여성노조의 그 동안의 모든 노고와 경험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여성노동자의 견인차가 되어 이끌어 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십년 후, 혹은 백년 후, 이 땅에 살고 있을 여성들에게 지금의 제가 여성노조 조합원이었음이 자랑스럽고, 그들 또한 이 땅에서 살다 간 여성 노동자들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노조, 길이 길이 모든 핍박받는 여성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 경남지부



## 대구경북지부



- **급식지회장 황성운** : 여성노조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땅위의 모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바랍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를 위해 애쓰는 여성 노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사무지회장 서병옥** :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억압 받고 차별 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여성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너무나 당연하고 가정에서조차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대전충청지부 목원대분회



여성노조 15주년 많이 많이 축하해요~

## 울산지부

그동안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여성비정규노동자 사업을 15년이란 역사를 지닌 전국여성노조~ 긴 시간동안 여성 노동자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써 함께 동행해오고 버팀목이 되어온 전국여성노조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신인숙 : 앞으로도 여성노동자들의 든든한 울타리로써 큰 힘과 버팀목으로 친정 같은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조남민 : 불안정한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희망의 지킴이가 된 여성노조 15주년 진심으로 축하 축하 합니다.
- 이연희 과학실험원 : 전국여성노조는 언제나 든든한 나

의 벧! 창립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할 때 힘이 되어주어 고마웠으며, 우리는 전국여성노조 옆을 항상 든든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우뚝 서는 그날까지 파이팅!!

## 88CC분회

전국여성노동조합 15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 더욱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성노조와 함께한 15년... 저희 88CC분회 조합원 모두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합니다.

## 최저임금 사행시 공모 당선작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15년 최저임금 6,700원 이상으로!' 사행시 공모를 겸한 2015년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했다. 지난 5월 21일(수)~6월 16일(월) 기간 동안 진행해서 130여 작품을 응모 받았으며 심사위원들은 7편 사행시를 선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결과 지난 6월말에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결정됐다.

### 〈육칠공공 쟁취상 - 전북지부 급식지회 강명숙〉

육 : 육신이 부서져라 일하고  
칠 : 칠천원도 안되는 돈 달라는데  
공 : 공연히 때 쏜다고?  
공 : 공평하게 하자고 우리, 제발!

### 〈따뜻한 밥 한끼상 - 인천대분회 고명임〉

육 : 육개장 값을 아시나요?  
칠 : 칠천원이랍니다.  
공 : 공무원 한끼 식사값도 안되는  
영 : 영~ 바닥인 최저임금 이번엔 확실히 올려!

### 〈공 몇 개 더붙여상 - 목원대분회 홍무선〉

육 : 육칠백백원이 비싸나요?  
칠 : 칠천구백원도 모자랄 판에!  
공 : 공 몇 개 더 붙이면 어디 덧나나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 : 공짜가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댓가!

### 〈칠십에도 투쟁하라상 - 서강대분회 다산관 김복자〉

육 : 육십대입니다.  
칠 : 칠십대가 코 앞인데  
영 :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영 : 영 하나 더 붙는 거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6,700원 주세요!

### 〈칠전팔기 다시 일어나상 - 연세대 기숙사분회 조매화〉

육 : 육체가 힘들고 눈물난다  
칠 : 칠전팔기로 이 악물고 산다  
공 : 공짜는 바라지 않는다  
공 : 공들인 만큼은 받고 싶다

### 〈웃음 주는 특별상 : 너거들만 점심먹나상 - 경남지부 월포급식소〉

육 : 육칠백백원 최저임금 많다고 생각하나  
칠 : 칠천원도 안되는 시급으로 점심한끼 못때운다  
공 : 공익위원 너거들은 점심밥 꼭꼭먹제?  
공 : 공공요금 인상만큼 최저임금 올려라

### 〈웃음 주는 특별상 : 7080 콘서트가리상 - 경기지부〉

육 : 육중한 장미여관그룹의 리더를 아시나요?  
칠 : 칠갑산을 부른 주병선 가수를 아시나요?  
빵 : 뽕뽕한 가수들 다 두고 왜 묻냐구요?  
빵 : 뽕뽕하게 최저임금 받아 콘서트 가보고 싶어서요.

## ‘만남·소통·힐링 2014 전국여성노동조합 언니캠프’를 다녀와서



질은 녹음이 가득한 더운 계절인 여름이 되었습니다. 참여한 언니캠프는 너무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다녀와서인지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의 조합원들과의 여행이어서 그런지 들뜬 기분으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도착해보니 펜션에서 멀리 내다보이는 모래사장과 해수욕장이 너무 시원해보여 속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던 요가는 청소하느라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잘 풀어주었습니다. 저녁식사 또한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이어진 영화보기는 내용은 감동적이고 훌륭했지만 음향 문제 때문에 그 감동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영화를 본다면 코믹영화로 배꼽 빠지게 웃고 즐기면 어떨까 합니다. 해도 뉘엿뉘엿 지고 언니캠프의 하이라이트인 분회별 장기자랑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기자랑은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다들 가수 뽕치는 실력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대단했습니다. 특히, 디스코 타임은 모두들 무아지경에 빠져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말 신났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 보물찾기는 마치 초등학교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알록달록 선물도 좋았구요. 햇볕이 너무 뜨거워 해수욕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게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더 큰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힘들게 일하고 제대로 쉬지 못해서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언니 캠프 덕분에 다 사라졌습니다. 항상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주는 여성노조가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지부 서강대분회 이현숙 사무장

##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간부수련회

2014년 9월 27일(토) 대전 대철회관(<http://daechoul.or.kr>)